

06 학교 생활 기록부

적을 수 없는 것

상·대회·소논문·학원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왜 막았나	3
03 그러면 이걸 되나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적을 수 없는 **일곱 가지** — 「대회」라는 낱말까지 막혀 있습니다
- ◆ **2011년부터의 흐름** — 무엇이 언제 빠졌나
- ◆ 「이건 되나」 **열 가지 표** — 학원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되나
- ◆ 부탁하지 말 것과 **대신 할 수 있는 것**

01 · 먼저 사실부터

규정이 막아 둔 것들

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. 선생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**규정이 막아 둔 것**이고, 막아 둔 까닭도 분명합니다 —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소를 빼기 위해서입니다. **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**을 부탁하게 됩니다.

	적을 수 없습니다	어디에
1	교외 수상	수상경력 칸에 교내상만 적습니다
2	수상 사실	수상경력 이외의 어떤 칸에도
3	「대회」라는 낱말	수상경력을 뺀 다른 칸 전부
4	대회 준비·참가 사실	수상 여부와 관계없이
5	소논문	기재 금지
6	방과후학교 활동 내용	미기재
7	청소년단체활동	고등학교는 미기재

3번과 4번이 특히 넓습니다. 「대회」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입력할 수 없다.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대회의 준비 과정·참가 사실도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지 않는다

출처: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9조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(고등학교) 유의사항.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·중·고가 다르다.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.

02 · 왜 막았나

2011년부터의 흐름

한 번에 막힌 것이 아닙니다. 십수 년에 걸쳐 하나씩 빠졌습니다.

언제	무엇이
2011학년도	교외상을 수상경력에서 뺐습니다
~2023 대입	자율동아리 연 1개(30자) · 소논문 금지 · 방과후 미기재
2024 대입~	수상경력·독서·자격증·자율동아리·개인봉사 대입 미반영

방향이 하나입니다. 학교 밖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차례로 뺐습니다.

규정에 그 까닭이 적혀 있습니다 — 「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,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」.

그래서 지금 남은 것

남은 것은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. 수업, 정규 동아리, 학교가 계획한 활동, 담임이 본 것.

이건 돈으로 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. 제도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고,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보입니다.

다만 완전히 평평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학교마다 수업과 프로그램이 다르니 차이는 남습니다. 다만 개인이 돈으로 메우던 자리는 좁아졌습니다.

출처: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9조 해설, 「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」(2019-11-28). 흐름에 대한 해석은 저희 판단입니다.

03 · 그러면 이건 되나

자주 걸리는 열 가지

이런 것	되나	왜
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	칸엔 적함	대입엔 안 갑니다
대회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을 세특에	×	준비 과정도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
대회와 무관하게 한 탐구를 세특에	○	수업 안의 일이면 됩니다
학원에서 배운 것을 수업에서 발표	○	발표한 사실 이 적힙니다
학원 이름·강의 이름	×	교외 기관은 안 적힙니다
공인어학 점수	×	사교육 유발 요소입니다
교외 봉사(개인)	칸엔 적함	대입엔 안 갑니다
학교 계획 봉사	○	「(학교)」로 등록됩니다
정규 동아리 활동	○	특기사항 500자
자율동아리	칸엔 적함	대입엔 안 갑니다

넷째 줄에 길이 있습니다. 학원에서 배웠어도 그것을 수업에서 쓰면 적힙니다. 적히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수업에서 한 일입니다.

출처: 위와 같음. 구체적인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담당 교사에 따릅니다 — 애매하면 학교에 물어보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부탁하지 말 것과 할 수 있는 것

부탁하지 마십시오	대신 이렇게
「상 받은 것 좀 적어 주세요」	그 공부를 수업에서 이어 가게 합니다
「이렇게 적어 주세요」 (문안)	수업에서 보이게 합니다
「학원에서 한 것도 넣어 주세요」	수업에서 발표·질문으로 씁니다
「분량 좀 늘려 주세요」	적힐 만한 일을 만듭니다

왼쪽 칸은 규정이 막아 둔 부탁입니다.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고, 들어드릴 수도 없습니다.

오른쪽 칸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부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이 다릅니다.

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교외상이 안 적힌다 는 것을 아는가
- ☐ 수상 사실을 다른 칸에 못 쓴다 는 것을 아는가
- ☐ 「대회」라는 낱말이 다른 칸에 못 들어간다 는 것을 아는가
- ☐ 공인어학 점수 가 안 적힌다는 것을 아는가
- ☐ 학원 활동 이 안 적힌다는 것을 아는가
- ☐ 안 되는 것을 부탁하고 있지 않은가
- ☐ 배운 것을 수업에서 쓰고 있는가
- ☐ 봉사가 「(학교)」 인가

여섯째를 조심하십시오. 규정이 막아 둔 것을 부탁하시면 선생님과 관계만 상합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이 편을 읽고 「그럼 사교육이 쓸모없다는 말인가」로 읽지는 마십시오. 학원에서 배운 것이 수업에서 드러나면 그건 적힙니다. 막힌 것은 「바깥에서 만든 실적을 그대로 옮겨 적는 길」이지 바깥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. 배운 것을 학교에서 쓰게 하십시오 — 그게 지금 제도에서 유일하게 남는 길입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기재 금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그럼 교내 대회는 나가지 말아야 하나요?

입시 자료로는 값이 없습니다. 그건 분명합니다.

수상경력 칸은 대입에 안 가고, 준비 과정도 다른 칸에 못 적습니다. 학생부 쪽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.

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며 공부한 내용은 아이 안에 남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수업에서 쓰면 그건 세특에 적힐 수 있습니다
— 대회와 연결하지 않는다면요.

그러니 「학생부 때문에 나간다」면 안 나가셔도 되고, 「하고 싶어서 나간다」면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.

판단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

Q. 다른 학교는 다 적어 준다던데요?

규정은 전국이 같습니다. 교육부훈령과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만든 기재요령이 정본입니다.

그러니 「그 학교는 적어 준다」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. 그리고 학생부는 감사 대상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다만 같은 일을 다르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. 「○○ 대회에서 수상함」은 안 되지만 「○○를 주제로 탐구하여 발표함」은 됩니다. 사실이 같아도 틀이 다르면 적힐 수 있습니다.

그걸 두고 「저 학교는 적어 준다」로 들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남의 학교 이야기보다 우리 학교 규정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바깥에서 만든 실적은 적히지 않습니다. 막힌 것은 옮겨 적는 길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니, 배운 것을 수업에서 쓰게 하십시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(고등학교)을 정리한 것입니다. 구체적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릅니다.